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4, 689 - 708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정 연 옥[†] 이 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와 비이혼가정 자녀간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수준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이혼가정 자녀와 비이혼가정 자녀 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이혼집단의 경우 유기공포 변인이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했다. 연구결과, 이혼 집단은 비이혼 집단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했으며,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가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집단별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정,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는 비이혼 집단에서 스트레스와 우울/불안간의 부정적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혼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혼집단의 경우, 유기공포 변인이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및 비행 간의 부정적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모양육태도보다는 유기공포에 대한 지각이 더 의미 있는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 이혼가정 자녀, 부모양육태도(온정, 지도감독),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유기공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연옥,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Tel: 031-219-2584/ Fax: 031-219-2195/ E-mail: yoc141@ajou.ac.kr

최근 우리사회에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하는 가정의 약 68.3% 정도는 이혼 당시 한명 이상의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다(통계청, 2004). 최근 청소년상담원에서 전국의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약 9.5%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신현숙, 정찬석, 2001).

대체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는 비이혼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학업적 성취, 자아개념, 품행,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Amato & Keith, 1991; Amato, 2001). 그러나 모든 이혼가정의 자녀가 특정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Hetherington(1993)은 이혼이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심각성이나 지속기간은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이혼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간의 부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 또는 이혼이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중 조절변인을 탐색하는데 적용되는 모델 중의 하나는 Cohen과 Wills(1985)가 제안한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 buffering model)이다. 이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문제간의 부정적 관계를 감소시켜주는 변인을 스트레스 완충변인으로 정의한다. 스트레스와 가정된 완충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적응문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면 스트레스 완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완충변인은 조절변인(moderator)의 개념이다.

스트레스 완충모델의 기본적 전제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대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다(Tein, Sandler, & Zautra, 2000). 주요한 생활 스트레스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발생과 정적 관계를 갖는다(Dohrenwend & Dohrenwend, 1974). 임상장면에서 주요한 생활사건의 발생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발생의 약 15%를 설명하며, 특히 주요 우울증 삽화, 적응장애를 촉발하는 사건 중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DSM-IV, 1994).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수준도 자녀의 심리적 적응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다(Sandler, Wolchik, Braver, & Fogas, 1991; Sandler, Tein, & West, 1994; Wolchik, Wilcox, Tein, & Sandler, 2000). 대개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이혼자체를 스트레스 사건으로 보고, 이혼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완충모델에 입각하여 이혼집단과 비이혼집단의 스트레스 완충변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완충의 보호적 자원 또는 위험요인을 탐색할 때 주로 활용되는 사회 환경요인중의 하나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이다(Wolchik, et al., 2000).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대개 부모의 양육태도로 측정된다. 부모-자녀관계는 이혼가정이든지 아니든지 자녀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 Maccoby & Martin, 1983).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상 집단이 이혼가정 자녀인지 비이혼가정 자녀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우선 비이혼 가정에서의 모자관계 특

장을 조사한 연구 결과(Baumrind, 1967; Holden, 1997)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활동에 대하여 온정적이고 문제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어머니가 처벌적이고 비온정적이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개 아동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공격적이며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적응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Simons & Johnson, 1996).

그러나,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모자관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olchik, et al., 2000). 예를 들어 Hetherington, Cox 및 Cox (1982)는 이혼 후 높은 수준의 부부간 갈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긍정적이면, 이혼 후 생활 스트레스가 자녀의 적응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etti, Bates 및 Dodge(1997)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결혼상태가 외재화 문제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보다 최근에 Wolchik 등(2000)은 8~15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예: 수용성, 훈육의 일관성)이 이혼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혼가정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는 모자관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Forehand 등(1991)은 모자관계의 질이 스트레스의 적응문제

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완충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Summers, Forehand, Armistead 및 Tannenbaum(199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연구에서,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 증상을 예측하는데 청소년기의 모자관계의 질과 부부의 갈등상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또한 홍순혜(2004)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이 이혼가정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Wolchik 등(2000)은 연구에 사용된 집단의 연령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미취학 및 중기 아동기에 해당되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을 때, 모자관계의 질은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라는 사회 환경적 요인은 특히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서 유의한 스트레스 완충변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가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나타내는데 있어 이혼집단과 비이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혼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개인내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개

인내적 취약성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인중의 하나는 아동의 이혼에 대한 지각 또는 인지 요인이다 (Lengua, Wolchick, & Braver, 1995). 유기공포 (fear of abandonment)는 이혼에 대한 인지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Kurdek & Berg, 1987). Kurdek과 Berg(1987)은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 또는 지각(예; 또래의 조롱과 회피, 어머니 비난, 아버지 비난, 자기 비난, 재결합 희망, 및 유기공포)과 적응문제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오직 유기공포 척도만이 자녀의 불안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유기공포란 개인이 돌봄을 받고 안정적인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위협당하는 상태로 가정된다(Baumeister & Leary, 1995). 또한 유기공포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안정성과 생활의 연속성에 대하여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다(Kurdek & Berg, 1987). 다시 말해, 유기공포란 부모가 이혼을 하여 어느 한 부모가 가정을 떠나면, 자녀는 그 떠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며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Gardner, 197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조절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써 유기공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Wolchick 등(2002)은 이혼가정 자녀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기제에 대한 설명변인으로써 유기공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연구결과, 유기공포는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모자관계 질이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데 있어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dek과 Berg(1987)은 유기공포 변인을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개인내적 취약

성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유기공포를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상정하여,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조절하는데 있어 완충효과를 나타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이혼가정 자녀와 비이혼가정 자녀간의 심리적 적응수준간의 평균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써 부모자녀관계와 유기공포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자녀관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혼가정 자녀는 유기공포와 같은 개인내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연령, 즉 12~15세에 해당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행하였다. 즉, 첫째,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 자녀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양육태도 변인은 이혼가정 자녀와 비이혼가정 자녀 모두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주는가? 셋째, 이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유기공포 변인은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나타내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Maccoby와 Martin(1983)은 핵심적 양육행동을 온정과 지도감독 차원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양육행동으로써 온정과 지도감독 요인을 상정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은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 1997)로 측정된 내재화 문제행동(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하위척도 포함)과 외재화 문제행동(비행, 공격성 하위척도 포함)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조절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이혼에 대한 자녀의 다양한 반응성을 이해하고, 예방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확인하여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Sandler, Wolchik, MacKinnon, Ayers, & Roosa, 1997).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경기도 지역에 있는 H, T 중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121명의 이혼가정 자녀(이하 이혼 집단)와 130명의 비이혼 가정 자녀(이하 비이혼 집단)로 총 25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2~15세였다. 비이혼 집단은 부모와 사별 및 6개월 이상의 별거 경험이 없으며, 이혼집단의 성, 연령,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의 표집 하였다. 이혼

집단과 비이혼 집단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이혼 집단(부: 68%, 모: 70%) 비이혼 집단(부: 70%, 모: 70%)]. 이혼 집단의 가정유형별 분포와 평균이혼기간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이혼집단 대상자들은 편모, 편부, 친모계부, 및 계모친부의 가정유형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이혼집단의 평균 이혼기간은 4.64년이었고,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질문지

이 척도는 배주미(2000)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척도로 명명한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총 18문항이고,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질병관련 스트레스”, “생활 및 관계의 변화”, “가족의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불화”, “가족 외의 친밀한 관계의 변화” 이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71$ 이었다.

표 1. 이혼 집단의 가정유형과 평균이혼기간

	이혼집단 (n=121)		
	남(n= 66)	여 (n=55)	전체
평균이혼기간(SD)	4.47(2.8)	4.84(3.1)	4.64(2.95)
가정유형			
편모(평균이혼기간)	25명(4.00)	22명(4.95)	47명(4.45)
편부(평균이혼기간)	18명(3.11)	17명(4.94)	35명(4.00)
친모계부(평균이혼기간)	9명(6.22)	11명(4.64)	20명(5.35)
계모친부(평균이혼기간)	14명(5.93)	5명(4.40)	19명(5.53)

부모양육태도(온정, 지도감독)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질문지 중 온정과 지도감독 척도만을 사용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온정 $\alpha=.89$, 지도감독 $\alpha=.75$, 어머니; 온정 $\alpha=.88$, 지도감독 $\alpha=.78$). 부모양육태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온정, 지도감독 점수가 산출되고, 각 요인별로 두 부모의 점수가 합산된다. 비이혼 집단의 경우 부모 모두와 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에게 대한 점수가 산출된다. 그러나 편모, 편부의 이혼가정에서는 양육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한명의 점수만이 산출된다. 편부모 가정의 자녀의 경우,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점수는 그 아동에 대한 양육방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홍순혜,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한쪽 부모의 점수만 있는 경우, 그 점수를 한 번 더 더한 값을 종속측정치로 삼았다.

유기공포(Fear of abandonment)

이 척도는 Kurdek 과 Berg(1987)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신념’ 질문지의 일부이다. 이 척도는 원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Wolchik 등(2002)은 유기공포척도중 요인 부하량이 낮은 2개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4개 문항을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부모님들께서 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결코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나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나는 부모님 없이 친척이나 친구와 함

께 살아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지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관련된 척도이므로, 이혼가정 자녀의 점수만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71$ 이었다.

심리적 적응

“한국판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척도(K-YSR; 오경자 등, 1997)”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등의 적응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는 다음과 같다. 위축 척도(남; $\alpha=.76$, 여; $\alpha=.66$), 신체증상 척도(남; $\alpha=.76$, 여; $\alpha=.79$), 우울/불안 척도(남; $\alpha=.79$ 여; $\alpha=.87$), 비행척도(남; $\alpha=.57$, 여; $\alpha=.59$), 공격성 척도(남; $\alpha=.81$ 여; $\alpha=.82$). 내재화 문제행동(남; $\alpha=.88$, 여; $\alpha=.89$), 외재화 문제행동(남; $\alpha=.83$, 여; $\alpha=.84$).

결 과

이혼 집단과 비이혼 집단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문제행동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각 종속측정치에 대한 집단(2)과 성별(2)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 집단과 비이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스트레스, 온정 및 지도감독의 부모양육태도, 신체증상, 우울/불안 이다. 내재화문제행동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그 하위척도중의 하나인 위축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하위척도의 점수들을 종속측정치로 삼았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혼 집단은 비이혼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50)=17.75, p<.001$. 또한 이혼 집단은 비이혼 집단에 비해서 부모를 덜 온정적이고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각했으며 $F(1,250)=18.03, p<.001, F(1,250)=5.45, p<.05$, 높은 수준의 신체증상과 우울/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250)=11.78, p<.001, F(1,250)=4.00, p<.05$.

한편,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지도감독, 신체증상, 우울/불안 이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서 부모의 지도감독을 더 소홀하다고 지각하였다, $F(1,250)=9.43, p<.001$.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F(1,250)=9.39, p<.005$, 특히, 높은 수준의 신체증상과 우울/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50)=7.74, p<.05, F(1,250)=9.72, p<.005$. 그러나 집단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성 변인의

표 2. 이혼집단과 비이혼집단의 성별에 따른 주요측정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이혼집단			비이혼집단			성	F 값	성x집단
	남(n=66)	여(n=55)	전체	남(n=73)	여(n=57)	전체			
스트레스	6.02 (3.34)	5.98 (2.51)	6.00 (2.98)	3.70 (2.40)	5.11 (3.58)	4.32 (3.04)	3.29	17.75*	3.59
부모양육태도	56.85 (12.53)	58.67 (12.21)	57.68 (12.37)	60.92 (10.56)	66.26 (10.72)	63.26 (10.92)	6.01**	15.90*	1.45
온정	35.12 (8.55)	35.20 (8.63)	35.16 (8.55)	37.93 (6.89)	40.70 (6.64)	39.15 (6.89)	2.12	18.03*	1.89
지도감독	21.73 (5.85)	23.51 (5.78)	22.54 (5.86)	22.99 (5.60)	25.56 (5.02)	24.12 (5.49)	9.43***	5.45***	.31
유기공포	.58 (.98)	.62 (1.06)	.60 (1.01)						
내재화문제	11.89 (8.74)	15.51 (10.49)	13.54 (9.70)	9.78 (6.29)	12.53 (6.99)	10.98 (6.72)	9.39***	6.03***	.18
위축	3.21 (2.83)	3.62 (2.66)	3.40 (2.75)	2.82 (2.34)	3.49 (2.38)	3.12 (2.37)	2.75	.64	.17
신체증상	2.94 (2.77)	4.49 (3.66)	3.64 (3.29)	2.22 (2.41)	2.70 (2.69)	2.43 (2.53)	7.74***	11.78*	2.14
우울/불안	6.08 (4.64)	8.04 (6.45)	6.97 (5.59)	4.93 (3.56)	6.75 (4.40)	5.73 (4.04)	9.72**	4.00***	.01
외재화문제	11.76 (6.88)	13.31 (7.33)	12.46 (7.10)	10.95 (5.67)	11.56 (5.47)	11.22 (5.57)	1.80	2.51	.34
비행	2.48 (1.82)	2.38 (2.13)	2.44 (1.96)	2.23 (1.50)	1.91 (1.14)	2.09 (1.36)	.99	2.87	.26
공격성	9.27 (5.53)	10.93 (5.78)	10.02 (5.68)	8.71 (4.74)	9.65 (4.89)	9.12 (4.81)	3.80	1.92	.29

* $p<.001$ ** $p<.005$ *** $p<.05$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 부모양육태도

이혼 및 비이혼 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온정, 지도감독)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3).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은 이혼 집단과 비이혼 집단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수행되었다. 성별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성별 변인을 첫 번째 예언변인으로, 스트

레스 변인을 두 번째 예언변인으로, 온정과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를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스트레스와 온정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및 스트레스와 지도감독의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을 네 번째 예언변인으로 누적하여 입력하고, 위축,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¹⁾

표 3을 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와 유기공포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온정,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유기공포와 온정,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도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지도감독의 양육태도와 신체증상간의 관련

표 3. 측정변인들간의 상관표(전체 집단 n=251)

변인명	1	2	3-①	3-②	4-①	4-②	4-③	5-①
1.스트레스	1.00							
2.유기공포	.20*	1.00						
3.부모양육태도								
①온정	-.24*	-.26*	1.00					
②지도감독	-.17*	-.17*	.51*	1.00				
4. 내재화								
①위축	.35*	.37*	-.26*	-.22*	1.00			
②신체증상	.34*	.25*	-.15*	-.11	.39*	1.00		
③우울/불안	.39*	.45*	-.23*	-.18*	.73*	.50*	1.00	
5.외재화								
①비행	.34*	.20*	-.23*	-.15**	.27*	.18*	.31*	1.00
②공격성	.40*	.29*	-.19*	-.12*	.44*	.34*	.61*	.57*

* p<.01, ** p<.05

1) 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해야 한다.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 즉 예언변인과 잠재적 조절변인을 중심화(centering)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상호작용 항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개인별 스트레스 점수 -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X 개인별 온정 점수 - 온정점수의 평균), (개인별 스트레스 점수 -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X 개인별 지도감독 점수 - 지도감독 점수의 평균).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이혼 집단의 경우,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은 위축 총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위축 총변량의 10%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27)=14.76, p<.001$.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 양육태도는 위축 변량의 19%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F(4,125)=16.65, p<.001$. 그러나 온정과 스트레스 및 지도감독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 양육태도 변인 등은 신체증상의 총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스트레스와 지도감독의 상호작용의 회

귀계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총 변량의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28)=6.82, p<.05$.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우울/불안 변량의 10%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2, 127)=15.30, p<.001$.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는 우울/불안 변량의 1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4, 125)=16.77, p<.001$.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및 스트레스와 지도감독의 상호작용은 변량의 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6, 123)=3.73, p<.05$.

한편, 이혼집단의 경우,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위축 총변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총변량의 12%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18)=16.29, p<.001$. 그

표 4. 위축,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단계	B	β	R^2	ΔR^2	단계	B	β	R^2	ΔR^2	단계	B	β	R^2	ΔR^2
비이혼집단															
성별	1	.85	.18	.01	.02	1	.36	.70	.00	.01	1	2.07	.26	.04	.05**
스트레스	2	.18	.23	.11	.10*	2	.17	.20	.02	.03	2	.27	.20	.14	.10*
온정(A)	3	-.13	-.38	.28	.19*	3	-.03	-.09	.03	.02	3	-.20	-.34	.31	.18*
지도감독(B)		-.05	-.11				-.04	-.05				-.15	-.20		
스트레스x A	4	.00	.04	.29	.02	4	-.00	-.04	.05	.04	4	1.00	.19	.34	.04**
스트레스 x B		-.03	-.17				-.03	-.18				-.176	-.31		
이혼집단															
성별	1	.46	.08	.00	.01	1	1.53	.23	.05	.06**	1	1.93	.17	.02	.03
스트레스	2	.32	.35	.11	.12*	2	.45	.41	.21	.16*	2	.73	.39	.17	.16*
온정(A)	3	.00	.01	.11	.02	3	.01	.04	.20	.01	3	-.02	-.04	.16	.01
지도감독(B)		-.06	-.13				-.06	-.10				-.04	.04		
스트레스x A	4	.01	.06	.11	.01	4	.01	.11	.20	.01	4	.53	.06	.16	.01
스트레스 x B		-.02	-.11				-.02	-.12				-.69	-.11		

* $p<.001$ ** $p<.05$ *** $p<.005$

그러나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의 양육태도 변인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및 스트레스와 지도감독의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은 신체증상 총변량의 6%를 설명하였다, $(1, 119)=7.02, p<.05$.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신체증상 변량의 1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18)=24.73, p<.001$. 그러나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 양육태도 변인의 회귀계수와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및 스트레스와 지도감독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우울/불안 총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우울/불안 변량의 1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2, 118)=22.54, p<.001$. 그러나 그 나머지 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위축, 신체증상, 및 우울/불안 증상에 대한 양육태도(온정, 지도감독)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온정, 지도감독)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비이혼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우울/불안 증상 수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잠재적 완충변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면 스트레

스 완충효과가 있다고 간주한다(Cohen & Wills, 1985).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상호작용효과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의 형태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Aiken & West, 1991). 상호작용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된 완충변인(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좌표 값(x, y)들을 구해야한다. 즉 양육태도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스트레스의 우울/불안 수준의 변화를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선을 찾기 위해서 회귀방정식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Aiken 등(1991)이 제안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²⁾ 비이혼 집단의 경우, 우울/불안수준에 대한 지도감독 X 스트레스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B=-.082, t=-.312, p=.009$), 온정 X 스트레스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34, t=1.537, p=.127$). 이에 지도감독의 고(평균에 1표준편차를 더한 점수), 저(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점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점수) 지도감독의 수준에 따라 우울/불안증상의 수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더한 점수) 지도감독의 수준에 따른 우울/불안증상 수준의 차이가 매우 커진다. 이는

2) $y = (b1+b3Z)X + (b2Z + b0)$, $b1$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b2$ =조절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b3$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0$ = 상수 값. Z 는 완충변인 또는 조절변인이다. 완충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Z 의 최대 값으로 평균에 1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투입하고, Z 의 최소 값으로는 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을 투입하여 두개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런 다음 예언변인 (X)의 최대 값과 최소 값에 따라 변화하는 y (종속측정치)의 값을 구한다. 예언변인의 최대 값은 그 변인의 평균에 1표준편차를 더한 값을 입력하고 최소 값은 그 변인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을 입력하여 방정식을 구한다.

스트레스와 우울/불안증상간의 관계에 대한 지도 감독의 영향력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효과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 변인을 첫 번째 예언변인으로, 스트레스 변인을 두 번째 예

언변인으로, 온정과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를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스트레스와 온정의 상호작용 및 스트레스와 지도감독의 상호작용을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누적하여 입력하여 비행과 공격성을 각기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5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우선 비이혼 집단의 경우,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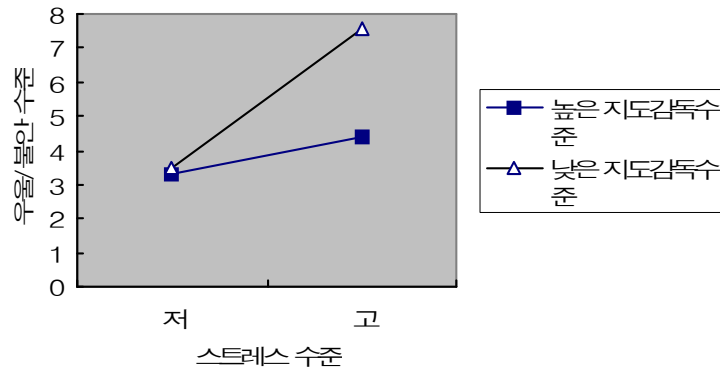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수준과 지도감독 수준의 우울/불안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비이혼집단)

표 5. 비행,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비행					공격성				
	단계	B	β	R ²	ΔR^2	단계	B	β	R ²	ΔR^2
비이혼집단										
성별	1	-.41	-.15	.01	.01	1	.55	.05	.00	.01
스트레스	2	.12	-.26	.07	.07**	2	.44	.28	.10	.11*
온정(A)	3	-.01	-.06	.08	.03	3	-.09	-.13	.12	.03
지도감독(B)		-.04	-.15				-.10	-.11		
스트레스x A	4	.00	.04	.10	.03	4	.03	.15	.13	.02
스트레스 x B		-.02	-.22				-.07	-.22		
이혼집단										
성별	1	.15	.04	-.01	.00	1	1.94	.17	.01	.02
스트레스	2	.25	.38	.16	.17*	2	.83	.44	.22	.20*
온정(A)	3	-.02	-.09	.16	.02	3	-.03	-.05	.21	.01
지도감독(B)		.01	-.04				.01	.01		
스트레스x A	4	-.03	-.39	.27	.12	4	-.03	-.14	.22	.03
스트레스 x B		.01	.12				-.01	-.04		

* $p < .001$ ** $p < .05$

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성별 변인을 투입했을 때 비행 총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로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면 비행 총변량의 5%를 설명했다, $F(2, 127)=9.05, p<.05$.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 변인의 회귀계수와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스트레스와 지도감독의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공격성 총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공격성 총변량의 11%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2, 127)=15.28, p<.001$. 그러나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 변인의 회귀계수와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스트레스와 지도감독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혼집단의 경우,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비행 총변량의 1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2, 118)=24.23, p<.001$. 3단계로 투입된 온정, 지도감독 변인의 회귀계수와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상호작용, 스트레스와 지도감독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의 주효과는 없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

은 공격성 변량의 20%를 유의하게 설명했다, $F(2, 118)=31.03, p<.001$. 그러나 3단계로 투입된 온정과 지도감독 변인의 회귀계수와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온정 상호작용, 스트레스와 지도감독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 유기공포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지각하는 유기공포의 수준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두 번째 예언변인으로, 지각된 유기공포를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 상호작용을 네 번째 예언변인으로 누적하여 입력하고,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수준을 각기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는 방식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랐다.³⁾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6을 보면, 위축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표 6.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단계	B	β	R ²	ΔR ²	단계	B	β	R ²	ΔR ²	단계	B	β	R ²	ΔR ²
성별	1	.31	.06	.00	.01	1	1.48	.23	.05	.06**	1	1.740	.16	.02	.03
스트레스	2	.27	.30	.11	.12*	2	.42	.38	.21	.16*	2	.63	.34	.17	.16*
유기공포	3	.99	.37	.24	.13*	3	.67	.21	.24	.04**	3	2.33	.42	.34	.17*
스트레스 x 유기공포	4	.13	.14	.25	.02	4	.10	.10	.24	.01	4	.27	.15	.36	.02**

* p<.001 ** p<.05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은 위축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예언변인은 총변량의 1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2, 118)=16.29, p<.001$.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위축 변량의 13%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117)=20.13, p<.001$. 그러나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변인은 총 변량의 6%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19)=7.02, p<.05$.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신체증상 변량의 1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2, 118)=24.73, p<.001$.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신체증상 변량의 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3, 117)=6.39, p<.05$. 그러나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

은 총변량의 3%를 설명하였다. 2단계로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면 우울/불안 변량의 16%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었다, $F(2, 118)=22.54, p<.001$.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 변인은 변량의 1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3, 117)=31.18, p<.001$.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의 상호작용은 변량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4, 116)=4.27, p<.05$.

요약하면 이혼집단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각된 유기공포는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간의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기술한 것처럼 도시화하였다. 즉 유기공포 고(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더한 점수), 저(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점수)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스트레스와 우울/불안간의 관계를 도시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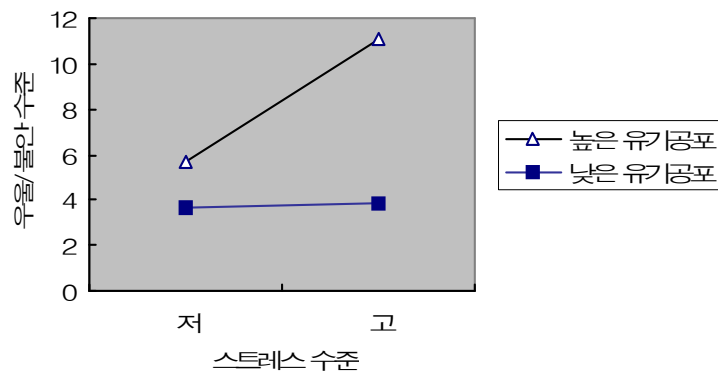


그림 2. 스트레스와 유기공포 수준의 우울/불안증상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이혼집단)

- 3) 스트레스와 유기공포의 상호작용항 생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별 스트레스 점수 -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X 개인별 유기공포 점수 - 유기공포 점수의 평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점수 기준) 유기공포의 수준에 따른 우울/불안 수준의 차이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더한 점수 기준) 유기공포의 수준에 따른 우울/불안증상 수준의 차이가 더 크다. 즉 이혼집단에서 스트레스와 우울/불안수준간의 부정적 관계는 유기공포 수준이 낮을 때 경감됨을 시사한다.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성별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변인을 첫 번째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두 번째 예언변인으로, 지각된 유기공포를 세 번째 예언변인으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의 상호작용을 네 번째 예언변인으로 누적하여 투입하고, 비행, 공격성을 각기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은 비행 총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비행 변량의 1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2, 118)=12.16, p<.001$. 3단계로 투입된 유기공포는 비행변량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3, 117)=9.77, p<.001$.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의 상호작용은 비행변량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116)=8.76, p<.001$.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1단계로 투입된 성별 변인은 공격성 총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2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은 공격성 변량의 20%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2, 118)=31.03, p<.001$. 3단

표 7. 비행, 공격성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비행					공격성				
	단계	B	β	R^2	ΔR^2	단계	B	β	R^2	ΔR^2
성별	1	-.17	-.04	-.01	.00	1	1.56	.14	.01	.02
스트레스	2	.26	.39	.16	.17*	2	.80	.43	.21	.20*
유기공포	3	.34	.18	.18	.03**	3	1.27	.23	.26	.05**
스트레스 x 유기	4	.11	.18	.21	.03**	4	.13	.07	.26	.01

* $p<.001$ ** $p<.05$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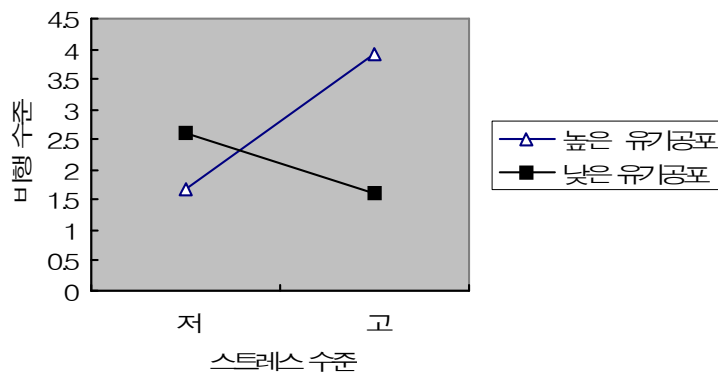


그림 3. 스트레스와 유기공포 수준의 비행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이혼집단)

계로 투입된 유기공포는 변량의 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F(3, 117)=8.02, p<.005$. 그러나 4단계로 투입된 스트레스와 유기공포 상호작용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이혼집단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공포는 스트레스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앞서 기술한 방식에 따라 도시화하였고, 이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 유기공포의 수준에 따른 비행행동의 수준 차이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유기공포의 수준에 따른 비행행동의 수준 차이가 더 크다. 이는 스트레스수준이 높더라도 유기공포 수준이 낮으면 비행 행동 경감에 보다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와 비이혼가정 자녀간의 심리적 적응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 중의 하나인 부모 양육태도변인이 이혼집단과 비이혼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지각된 유기공포 변인이 이혼집단에서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나타내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 자녀는 스트레스 수준, 심리적 부적응수준, 부모양육태도 등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혼 집단은 비이혼

집단에 비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높은 신체증상과 높은 우울/불안 수준을 보고했다. 또한 이혼집단은 비이혼집단에 비해서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그들은 부모를 덜 온정적이며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지각하였다(표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고(Hetherington,1993),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Amato, & Keith,1991; Amato, 2001; Emery, 1982)과 일치한다.

두 번째로 부모양육태도(온정, 지도감독)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비이혼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트레스와 우울/불안증상간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특히, 지도감독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불안 수준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적절한 지도감독의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의 우울/불안 수준이 경감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그러나 이혼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연령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Hetherington et al., 1982; Petti et al., 1997)와는 상치되지만, 주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Forehand et al., 1991; Summer et al., 1998; 홍순혜, 2004)와는 일치된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연령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시사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서 이혼 가정 자녀가 지각하는 유기공포 수준은 유의미한 스트레스 조절변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공포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여 우울/불안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우울/불안 증상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유기공포 수준이 낮으면 유기공포 수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우울/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공포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비행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비행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유기공포 수준이 낮으면 유기공포 수준이 높을 때에 비해서 스트레스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가정의 청소년은 비이혼가정 청소년들에 비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이고, 이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사회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양육태도보다는 개인내적 취약성요인인 유기공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Wolchik 등(2002)의 연구에서 유기공포가 모자관계의 질과 내재화 및 외재화문제 행동간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본 연구가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갖는 조절변인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개인내적 취약성 요인과 특정 심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와 함께 유기공포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도 필요하겠다. 즉 자녀의 성, 연령, 자존감

등과 같은 개인내적 취약성 요인들과 편모, 편부, 친모계부, 계모친부 이혼가정 유형 특성들과 유기공포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은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 집단과 비이혼 집단간의 심리적 적응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연령과 성,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 등의 요인을 비교적 정교하게 짚어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이혼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수준의 평균적인 차이에 대한 비교적 신뢰로운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 변인은 스트레스 완충변인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자녀의 연령 범위를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Sandler 등(1997)이 지적한 것처럼, 치료적 개입을 할 때 고 위험 군에 속하는 대상 집단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입의 표적이 되는 집단을 분명히 하면 개입의 치료적 성과가 향상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유기공포 지각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치료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치료적 초점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가족이나 부모에게 치료적 초점을 두어 표면적인 수준의 부모양육태도를 개선하는

것 보다는 이혼가정 자녀 당사자에게 치료적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그들이 실제로 겪는 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변인은 비이혼가정 청소년에게는 유의미한 스트레스 조절변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혼가정 청소년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로 측정된 온정과 지도감독요인이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애착 안정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을 상정하여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혼가정 자녀집단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 경과한 기간은 평균 4.7년이었다. Hetherington(1993)은 부모의 이혼이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자녀의 적응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연구를 수행할 때 이혼경과 기간을 통제한다면(예컨대, 2년 미만 또는 2년 이상),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증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을 편모가정, 편부가정, 친부계모가정, 계부친모가정 유형으로 분류하긴 하였으나, 각 유형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아서, 이혼가정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앞으로 이혼 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적인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의 직, 간접적 효과를 탐색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 고 문 헌

-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숙, 정찬석 (2001). 이혼가정의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 청소년상담원.
-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47-53.
- 통계청(2004). 2003년 인구동태자료. 서울: 통계청.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0.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Sage.
- Amato, P. R.(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7, 497-529.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d

-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Cohen, J., & Cohen, P.(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e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hen, S. & Wills, T.(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ohrenwend, B. S., & Dohrenwend, B. P.(1974).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and effects*. New York: Wiley.
- DSM-IV (1994).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Emery, R. E.(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Emery, R. E. & Forehand, R.(1994).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p64-9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ehand, R., Wierson, M., Thomas, A. T., Fauber, R., Armistead, L., Kempton, T., & Long, N.(1991). A short-term longitudinal examination of young adolescent functioning following divorce: The role of family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97-110.
- Gardner, R. A.(1976). *Psychotherapy with children of divorce*. New York: Jason Aronson.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39-56.
- Hetherington, E. M., & Chihgempeel, W. G.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2-30, Serial No. 227).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p.233-285). Hilldale, NJ: Erlbaum.
- Holden, G. W. (1997). *Parents and the dynamics of child rearing*. Boulder, CO: Westview.
- Kurdek, L., & Berg, B.(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Lengua, L. J., Wolchick, S.A., & Braver(1995). Understand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 25-54
-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pp, 1-101)*. New York: Wiley.
- Petti, G. S., Bates, J.E., & Doges,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 908-923.
- Sandler, I. N., Tein, J.-Y., & West, S. G.(1994). Cop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of divorc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744-1763.
- Sandler, I. N., Wolchik, S. A., Braver, S., L., & Fogas, B.(1991). Significant events of children of divorce : Toward the assessment of a risky situation. In S. M. Auerbach & Stolberg(Eds.), *Crisis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families(pp. 65-87)*. New York: Hemisphere.
- Sandler, I. N., Wolchick, S. A., MacKinnon, D., Ayers, T. S., & Rossa, M. W.(1997). Developing linkages between theory and intervention in stress and coping processes. In S. A. Wolchik & I. N. Sandler (Eds.), *Handbook of children's coping: Linking theory and intervention(pp.3-41)*. New York: Plenum.
- Simons, R. L., & Beaman, J. (1996). Father's parenting. In R. L. Simons & Associates(Eds.),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ress, Interaction and child outcome(pp. 94-103)*. Thousand Oaks, CA:Sage.
- Summers, P., Forehand, R., Armistead, L., & Tannenbaum, L. (1998). Parental divorce during early adolescence in Caucasia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process variables on predicting the long-term consequences for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27-336.
- Tein, J., Sandler, I. N., Zautra, A. J. (2000).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Distress, Coping, and Parenting of Divorced Mothe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27-41.
- Wolchik, S. A., Tein, J., Sandler, I. N., & Doyle, K. W.(2002). Fear of Abandonmen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8.
-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 Sandler, I. N. (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8(1)*, 87-102.

논문접수일: 2006년 9월 1일

게재결정일: 2006년 10월 9일

Parental attitudes and fear of abandonment as stress buffering moderators on children of divorce

Yeonok Chung Min Ky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differences in stress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s between the children of divorce and the children in intact families. We also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Furthermore, in case of divorced group, we tested moderating effect of fear of abandon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s. We found that the children of divorce had a higher stress level,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more negatively and suffered more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such as somatic complaints, anxious/depressed symptoms than the children in intact families.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arental warmth and supervision factors moder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 and anxious/depressed symptoms significantly in the group of children of divorce, but insignificantly in the group of children in intact families. In the group of children of divorce, the fear of abandonment factor was found to moderat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es, anxious/depressed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s significantly. It is suggested that the fear of abandonment is a factor more important than parental attitudes in the treatment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of the children of divorce.

Keywords : children of divorce, parental attitudes, warmth, supervision,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ear of abandonment